

# 이동욱, 토크쇼 단독 호스트 출격

### 내달 4일 SBS서 첫방 예정

배우 이동욱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토크쇼의 단독 호스트로 출격한다.

3일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측은 "이동욱이 오는 12월4일 방영 예정인 SBS 신규 토크쇼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의 단독 호스트로 출연한다."

오래전부터 토크쇼에 대한 바람을 꾸준히 드러내왔던 만큼 다양한 모습들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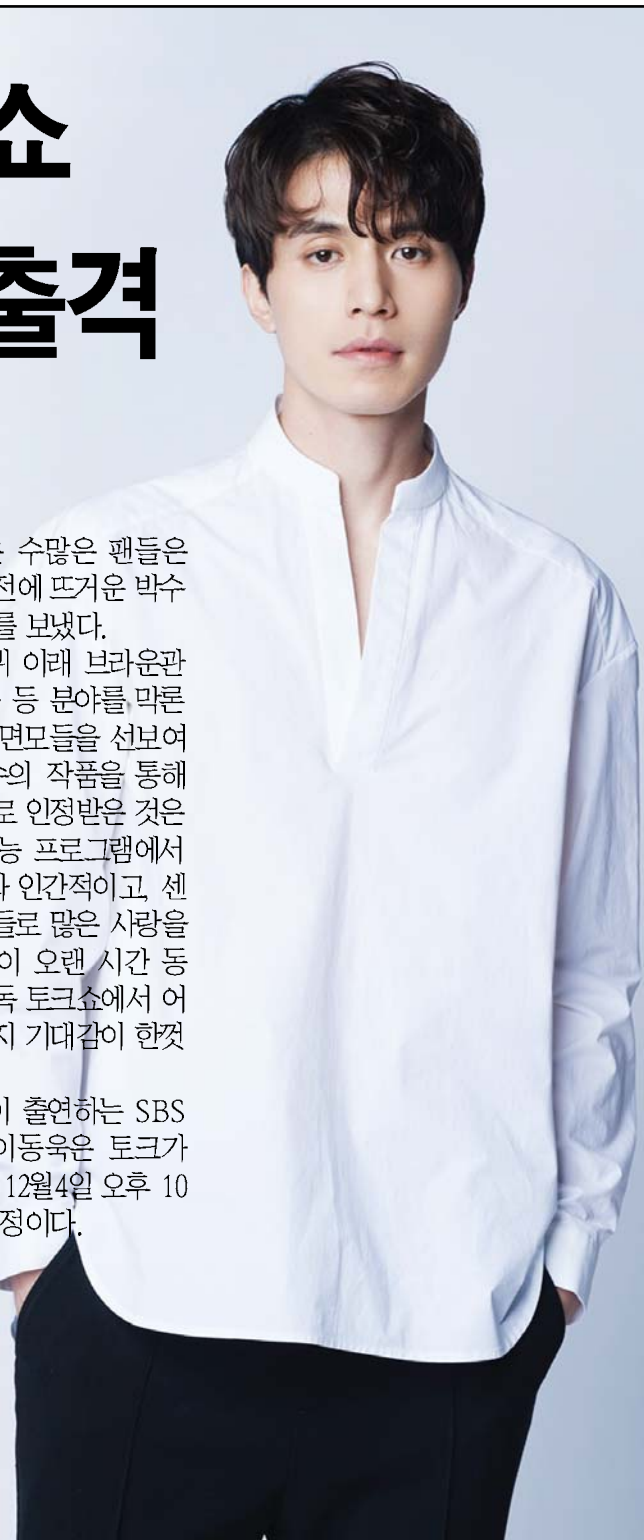
최근 중영한 OCN 드라마틱 시네마 '타인은 지옥이다'에서 이동욱은 역대급 살인마 서문조 역으로 연기 변신에 성공,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에 그의 차기작에 관심이 모이고 있던 상황.

이동욱은 차기작에 대한 소식을 팬들에게 제일 먼저 알렸다. 지난 2일에 진행된 데뷔 20주년 국내 팬미팅 'I'M WOOK'의 공연 말미, 팬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다며 토크쇼 출연을 언급한 것. 현장에서 토크쇼 론

칭 소식을 들은 수많은 팬들은 그의 새로운 도전에 뜨거운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이동욱은 데뷔 이래 브라운관과 스크린, 예능 등 분야를 막론하고 늘 색다른 면모들을 선보여왔다. 그는 다수의 작품을 통해 믿고 보는 배우로 인정받은 것은 물론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매끄러운 진행과 인간적이고 센스 넘치는 모습들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동욱이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던 단독 토크쇼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한편 이동욱이 출연하는 SBS 신규 토크쇼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는 12월4일 오후 10시 처음 방송 예정이다.



## 올해 시상식 없다?...대중상에 무슨 일이

### 한국 영화 100년 기념하는 해...당초 오는 13일에서 내년 초로 연기

매년 가을 열리던 대중상 영화제가 올해는 열리지 않는다. 대중상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김구회)가 제56회 대중상 영화제 시상식 일정을 내년 2월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제56회 대중상 영화제는 오는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시상식들이 열리게 됐고, 혼선을 피하기 위해 내년으로 개최 시기를 조정하게 됐다는 게 대중상 영화제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중상 영화제가 개최를 계획했던 13일에는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이하 영평상)이 열리고, 청룡영화상 역시 약 일주일 뒤인 21일에 열린다. 대중상 영화제 측에서는 이미 세종문화회관에 대관료까지 지불한 상태였고, 예심 심사위원을 구성해 후보작들을 추리기까지 했지만 결국 이를 다 취소하고 내년을 기약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대중상 영화제에서 자체적으로 꾸린 혁신위원회

의 영향이 컸다. 혁신위원회에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처럼 매년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나온 영화 중 수상 후보를 정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따르기로 했다. 그에 따라 예상되는 개최 시기는 2020년 2월이다.

시상식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최기관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와 따로 상의하지 않고 조직위원회에서 자체 구성한 혁신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상식 연기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영화인총연합회 관계자는 1일 뉴스1에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서는 그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고, 할 수 없었다. 조직위원회 측과 의견을 조율 중이며 조만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한국 영화 100년을 기념하는 해다. 매년 하던 대중상이어서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연기한 적이 없지만 조직위원회 역시 발전을 위해 한 선택이므로

대화로 잘 조정해 갈 것이다. 한국 영화인총연합회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해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비용 문제도 대중상 영화제의 연기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뉴스1에 "근래 대중상에 들어가던 정부의 지원이 끊겨서 모든 비용을 협찬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들었다. 방송 중계 비용만 수익원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민간 단체가 시상식을 꾸려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대중상 영화제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영화인총연합회 산하 단체 회원들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50~70년대까지 문교부, 문화공보부 등 국가 기관이 주축을 담당했으나 90년대부터 민간이 담당해왔다. 2010년대 들어와 '대리수상 논란'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뉴스1

## 180도 달라진 뉴이스트, '러브 미'로 이룬 스펙트럼 확장

그룹 뉴이스트가 180도 달라진 콘셉트의 곡 '러브 미' (Love Me)로 음악 스펙트럼을 확장한 것은 물론, 가요 순위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뉴이스트는 지난 10월21일 미니 7집 '더 테이블' (The Table)을 발매하고 가요계에 컴백했다. 타이틀곡 '러브 미'는 사랑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을 일터너티브 하우스와 여반 R&B라는 두 가지 장르로 세련되면서도 달콤한 사운드로 표현한 노래다. 사랑 앞에서는 조금 더 솔직해져도 된다는 메시지를 직접적이면서도 리드미컬하게 전달한다.

이들의 변화는 팬들에게도 반갑게 다가온다. 지난 2012년 데뷔한 뉴이스트는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페이스' (FACE), '액션' (Action)이나 감성적인 분위기의 '여보세요', '굿 바이 바이' (Good Bye Bye)로 다소 다크한 무드의 곡을 선보여왔다. '여왕의 기사' - '러브 페인트' (Love Paint) - '벳 벳' (BET BET)으로 이어지는 기사 3부작 역시 몽환적



인 느낌의 곡들이었다.

반면 '러브 미'는 뉴이스트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청량 콘셉트의 타이틀곡이다. 그룹이 시도할 수 있는 음악 장르를 확장한 셈. 멤버들 역시 처음엔 새로운 콘셉트가 낯설었다고, 앞서 진행된 쇼케이스에서 민현은 "그동안은 어두운 분위기의 노래를 많이 했는데, 이번엔 밝고 청량한 느낌의 곡을 하게 됐다"라며 처음엔 낯설었는데 하면서 즐겁더라"라고 솔직한 생

각을 알렸다. 백호 역시 "밝은 톤의 음악이 어색해서 수정 녹음을 많이 했다. 그만큼 애착이 가는 앨범"이라고 귀띔했다.

뉴이스트의 새 실력은 성공적이다. 달콤한 사랑 노래 '러브 미'는 '뉴이스트의 사랑스러운 면을 엿볼 수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180도 달라진 뉴이스트는 남다른 곡 소화력으로 장르의 다양성을 넓히는데 성공, 그 능력을 인정 받았다.

## 홍현희, 피오·전현무도 놀란 기상천외 게 등딱지 먹방

### MBC '전지적 참견 시점'서 등 껌데기까지 씹어먹어

'전지적 참견 시점' 홍현희의 차례쇼 같은 먹방이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은 전국 기준 1부 5.8%, 2부 6.3%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장면은 홍현희가 기상천외한 게 먹방을 선보인 장면이었다. 게 등 껌데기까지 이로 씹어먹는 그의 터프한 먹방은 함께 식사하던 매니저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먹방을 '태어나서 처음

봤다"고 밝힌 매니저는 식사하는 것도 잊고 홍현희의 치이를 걱정하며 그를 지켜봤다.

이와 함께 출연진들 또한 놀라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피오는 "이건 차례쇼 아니예요?", 전현무는 "기인연전이다. 과자 먹듯이 먹는다", 양세형은 "게 껌데기가 남지 않는 빈 접시를 보고 식당 직원이 놀라시겠다"며 각각각색 반응을 보여 큰 웃음과 공감을 자아냈다.

한편 '전지적 참견 시점'은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5분 방송된다.

뉴스1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